공동체 화합 위한 엄격한 자정 시스템

금강스님의 계율 이야기

⑥ 포살과 자자



수행자들은 자신의 수행과 생활을 돌아보며 참회를 통해 청정함을 유지한다. 승가의 대표적인 공동체 참회 행사로는 '포살'과 '자자'가 있다. 사진은 조계종 직할교구가 6월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한 하안거 첫 포살법회.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atha kho bhagavā sāyaṇhasamayaṃ paṭisallānā vuṭṭhito etasmiṃ nidāne etasmiṃ pakaraṇe dhammikathaṃ katvā bhikkhū āmantesi : idha mayhaṃ bhikkhave rahogatassa paṭisallīnassa evaṃ cetaso parivitakko udapādi : yaṃ nūnāhaṃ yāni mayā bhikkhūnaṃ paññattāni sikkhāpadāni tāni nesaṃ pātimokkhuddesaṃ anujāneyyaṃ, so nesaṃ bhavissati uposathakamman ti. anujānāmi bhikkhave pātimokkhaṃ uddisituṃ.

爾時世尊. 從靜處出. 以此因緣集諸比丘告言. 我向者在靜處思惟. 心念言. 我與諸比丘結戒. 及說波羅提木叉戒. 有信心新受戒比丘. 未得聞戒. 不知當云何學戒. 復自念言. 我今寧可聽諸比丘集在一處說波羅提木叉. 以是故. 聽諸比丘共集在一處說波羅提木叉戒. 作如是說.

세존께서는 명상에서 깨어나 그 인연을 기회로 삼아 법문을 하고 비구들에게 일렀다. '비구들이여, 나는 홀로 떨어져 명상하다가 마음속에 이와 같이 '나는 비구들을 위하여 학계를 시설하였는데,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바라제목차로서 송출하는 것을 허용하여, 그것이 그들의 포살갈마가 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비구들이여 나는 바라제목차로서 송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 마하박가 포살건도

우리는 왜 출가자나 성직자의 삶을 존경하는가? 그 존경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의문을 품고 살아간다. 세속을 떠난 출가자의 삶은 재가신자들의 생활 방식과 확연히 다르기에 존경심을 자아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출가자는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간다. 그런 까닭에 재가신자는 출가자를 고귀한 수행자로 바라보며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출가자는 검소한 삶을 추구하며, 수행자로서 청정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출가자의 검소한 삶은 '4의지(四依止)'라는 생활 방식에서 잘 나타난다. 4의지는 삶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를 의미한다. 의복은 분소의(버려진 천으로 만든 옷)를, 음식은 탁발을, 주거는 수하좌(나무 아래 잠자리)를 통함으로써 출가자는 기본 생활을 영위한다. 즉, 4의지는 무소유의 삶을 뜻하며 청렴한 출가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4의지가 출가자의 검소한 생활을 대변한다면,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붓다가 살던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신에게 제사를 올리거나 불을 섬김으로써 스스로 정화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붓다는 이러한 외적 행위가 내면의 마음까지 정화하지는 못한다고 설했다. 올바르고 청정한 삶의 방식은 수행을 통해 '스스로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다. 수행자들은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과 더불어, 자신의 수행과 생활을 돌아보며 청정함을 유지한다. 이처럼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며 악한 짓을 저질렀거나 게으름 피운 것을 반성하는 행위를 '참회(懺悔)'라고 한다. 참회 방법 중에서도 승가의 대표적인 공동체 반성 행사로 '포살'과 '자자'가 있다.

포살(布薩, uposatha)은 붓다 당시 마가다국 빔비사라 왕의 권유로 불교에 수용됐다. 원래 포살은 힌두교의 정진일에서 유래했다. 힌두교에서는 포살일에 단식이나 걸식을 하며 수행에 정진했는데, 이것이 불교에 수용되면서 불교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정착됐다. 포살일이 되면 승가 구성원들이 모여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pāṭimokkha)'를 함께 합송한다. 바라제목차는 비구와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 조문을 모은 것으로, 이를 범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348개의 조문을 받아 지키는데, 붓다가 직접 제정하여 조문을 범한 출가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웃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불교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출가자가 조문을 범하게 되면 재가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지만, 수행자 역시 실수를 할 수 있기에 참회를 통해 청정성을 회복한다. 그 구체적인 참회의 과정이 바로 포살이다.

> 어긴 계율 반성해 청정 회복하는 포살
> 안거 중 지은 잘못 서로 참회하는 자자
> 허물 참괴와 지적 수용은 승가 지탱 힘
> 지계 정신과 참회, 세간 맑히는 등불

포살은 15일마다 행해지는 의식으로, 법납에 상관없이 모든 승가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특히 포살에 참석하기 전에 지난 행동을 되돌아보고 계율을 어긴 일이 있다면 미리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 다만, 기억하지 못했던 잘못이 포살 중에 생각난다면 동료 출가자에게 조용히 잘못을 드러내고 참회하면 된다. 이처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참회한 출가자는 포살을 통해 비로소 '청정한 비구'임을 확인받는다.

saṃghaṃ āvuso pavāremi diṭṭhena vā sutena vā parisaṅkāya vā, vadantu maṃ āyasmanto anukampaṃ upādāya, passanto paṭikarissāmi.

大德眾僧今日自恣. 我某甲比丘亦自恣. 若見聞疑罪. 大德長老. 哀愍故語我. 我若見罪. 當如法懺悔. 如是第二第三說.

벗들이여, 저는 세 가지 경우 즉, 보인 것이나 들린 것이나 의심된 것을 통해서 승가에서 자자를 행하려고 합니다. 존자들께서는 저를 애민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인지하면 참회하겠습니다. – 마하박가 자자건도

자자(自恣, pavāraṇā)는 안거[集中修行]가 끝나는 해제 전날, 안거 기간 동안 함께 지낸 수행승들이 모여 치르는 의식이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계율을 어겼거나 대중 스님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지 되돌아보며 서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자리다. 안거 해제 전날에만 행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포살과 같은 맥락의 의미를 지닌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며 자신의 행동과 생활 방식을 돌아보는 것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포살과 자자는 승가의 다양한 제도 가운데, 공동체 수행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화합을 이뤄가는 과정이자 수행자의 청정함을 증명하는 불교 의례다. 우리는 포살과 자자를 통해 수행자의 청정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비구의 성스러움과 승가의 청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많은 대중이 원활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죄를 지었으면 반성하고 참회하게 함으로써 승가를 청정하게 전승하는 기능을 한다. 포살은 비구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행사이기도 하다. 포살을 통해 비구는 스스로를 반성하며, 자신이 비구이자 승가의 일원임을 깊이 자각한다.

출가하여 수계(授戒)를 받았다면 계율을 실천하고 범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상황과 여건에 따라 계를 범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참회와 반성이다.

붓다는 스스로 청정하다는 이유로 포살에 불참하려 했던 장로 비구를 경책하며, 오히려 윗사람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설했다. 이렇듯 포살은 출가자의 청정함을 통해 불교 공동체가 지닌 뛰어난 자정 작용을 보여주는 의례다.

출가는 바른 신심을 내어 붓다의 가르침에 의지하겠다는 서원이기에,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출가자의 이러한 지계(持戒) 정신과 끊임없는 참회와 반성이야말로 재가신자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는 진짜 이유일 것이다.

이처럼 출가자가 존경을 받는 이유는 결점이 전혀 없는 완벽한 존재여서가 아니다. 허물이 생겼을 때 이를 감추지 않고, 포살과 자자라는 엄격한 자정(自淨)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드러내며 끊임없이 청정함을 회복하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허물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정직함, 그리고 도반의 따끔한 지적을 자비로 수용하는 겸손함이야말로 승가를 지탱하는 가장 성스러운 힘이다.

오늘날 포살과 자자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남의 탓만 하기 바쁜 현대 사회에서, 스스로를 엄격히 되돌아보는 '포살'과 타인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자'의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시사점을 던진다. 출가자의 지계(持戒) 정신과 끊임없는 참회는 단순히 불교 공동체를 유지하는 규율을 넘어,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간을 맑히는 청량한 등불이 되어 주기에 우리는 여전히 수행자의 삶을 존경하는 것이다.



금강 스님
해인총림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 직무대행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화엄의 세계관으로 읽는 AI시대 문명 철학서
"수행은 법당 안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완성된다"
"불교가 시대와 만나지 않으면 도태된다"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퇴우 정념 지음 | 344쪽 | 18,500원
퇴우 정념 스님 저서 출판 기념회 2026년 6월 19일 오후 5시. 서울 앰베서더 풀만 호텔 (장충로 2가) 그랜드볼룸
민족사